

# 파니움 - 제15번

"250" 세 차례

Jeff Pippenger

2026-02-19

2026년에 트럼프는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며, 이로써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의 역사에서 기원전 457년에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에 이르기까지의 "250"년과 일치한다. "250"년의 끝에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기원전 207년에 위치하며, 라피아 전투 후 10년, 파니움 전투 전 7년이다. "250"년의 증거는 또한 이교 로마의 "250"년 기간과도 일치하는데, 64년에 네로가 그리스도인 박해를 시작하였고 "250"년 뒤인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박해가 종결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추종자들의 표어—MAGA—이다. 트럼프는 예언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안티오쿠스 대왕으로 예표되어 왔고, 물론 다니엘서 11장 처음 몇 절에서는 그가 키루스 대왕, 크세르크세스 대왕, 그리고 이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 제시된다. 기원전 457년에 내려진 키루스, 다리우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칙령으로부터 파니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는 이백오십 년이다. "250"년의 끝은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2026년 또한 그러하다. 2026년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의 중간 시점이다. 네로의 "250"년 박해는 그리스도인 박해를 종결하는 칙령으로 이어진다. 키루스, 네로, 트럼프로 대표되는 세 "250"년의 선 가운데 네로의 선은 가운데 선이다.

고레스는 첫째 조서를 반포하였고, 아닥사스다는 셋째 조서를 반포하였다. 고레스는 첫째 천사요, 아닥사스다는 셋째 천사이다. 나는 함께 기원전 457년을 가리키는 세 조서를 모두 상징하는 표상으로 고레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레스는 기원전 457년에 "250"년의 연한을 시작하며, 그 연한은 파니움의 역사에서 끝난다. 파니움은 곧 도널드 트럼프인 안티오쿠스 대왕의 역사다. 파니움은 일요일 법령 앞의 구절이다. 고레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공화주의의 뿔을 대표하는 "250"년의 역사적 연한의 시작을 표시하며,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개신교의 뿔을 대표하는 2,300년의 역사적 연한의 시작도 표시한다.

네로는 박해에서 타협에 이르는 것을 표상하는 하나의 역사적 선을 개시한다. 예언적 기간의 중간 지점에서 종결되는 선을 표상하는 고레스와 미국과는 달리, 네로의 선은 313년의 밀라노 칙령으로 시작하여 321년의 최초의 주일법을 거치고, 그 뒤 330년에는 로마가 동과 서로 분할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타협의 기간의 예증으로 끝난다. 그 세 날짜 모두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표상된다. 네로의 선에서 313년부터 330년까지는 17년이다. 고레스의 선에서, 기원전 217년의 라피아 전투부터 기원전 200년의 파니움 전투까지도 17년이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아닥사스다는 제3 칙령에 해당한다. 제3 칙령은 셋째 천사와 일요일 법령을 표상한다. 기원전 457년으로부터의 '250'년과 1776년으로부터의 '250'년, 이 둘은

모두 16절의 일요일 법령 직전에 전개되는 역사 한가운데에서 종결된다. 11장은 궁극적으로 10절에서 1989년의 역사를, 11절에서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를, 이어 13절에서 2024년에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로 복귀하는 일을 각각 표상하도록 구절들을 제시하고, 이어 14절은 영화로운 땅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 외적 이상을 확립하는 가운데 2025년을 가리킨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요한 바오로 2세와 로널드 레이건 사이의 비밀 동맹을 통해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인 1989년에 성취되었다. 1989년 끝의 때에 있었던 그 비밀 동맹은, 1989년에 시작된 예언적 기간의 끝에 나타날 공개 동맹을 예표하였다. 그 공개 동맹이 그 이상을 확증한다.

2026년은 "250"년의 예언적 역사의 끝이다. 이 기간은 1776년부터 1798년의 마지막 때까지의 22년으로 시작되었다. 그 시작의 22년은 9/11에서 2023년까지의 22년 역사에 반영되어 있다. 1798년에 그 22년이 끝날 때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렸고, 이어 9/11에서 시작되어 2023년 12월 31일에 끝난 22년의 끝에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함을 풀기 시작하셨다.

1798년에 22년의 기간이 끝나면서 봉인이 풀린 그 기별은,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220년이 지난 1831년에 대중에게 제시되었다. 1798년부터 1831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열려 갔다. 1831년이 되자 그것은 공적 영역에 들어섰고, 남녀 모두가 1798년에 봉인이 풀린 그 기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어 1840년에는, 화이트 자매의 표현대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났다.

22년의 기간의 종결점(1798)에서 220년의 기간의 종결점(1831)에 이르기까지, 한 메시지의 봉함이 풀리는 기간이 표상된다. 그 도식에는 메시지가 정식화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어 그 후 재계산된 예언을 특정하는 이정표가 있고, 그 예언이 다시 그 후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운 현현"의 시작을 식별하는 이정표가 형성된다.

1989년의 운동의 말미에 해당하는 22년의 기간은 9/11에서 시작하여, 다시금 예언의 봉인이 풀린 2023년에 이르기까지였다. 그 예언은 반드시 지식이 증가하는 기간을 시작할 것이며, 그 지식은 시험하고 분리하는 지식일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기 때문이다. 그 기별이 공적 영역에 제시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 기별은 예언적으로 재계산된 기별이라는 성격을 띠는 것이며, 다시금 하나의 예측을 포함할 것이다. 그 공개적 예측이 성취될 때, 그 기별은 1840년과 오순절의 역사에 의해 대표되는 바와 같이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다니엘 11장 40절의 봉함이 풀렸고, 1996년에는 다니엘 11장의 기별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었다. 1996년은 1776년으로부터 220년 후이며, 1776년은 1798년에 종결되는 22년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2026년에 끝나는 250년의 기간도 시작하였다. 공화주의의 별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중간지점에 이르고, 개신교의 별은 2026년에 이르는데, 그 2026년은 1989년 끝의 때에 봉함이 풀리고 1996년에 그 기별이 공식화됨으로써 시작된 30년 기간의 종점이다. 예수께서는 항상 시작으로 끝을 예증하시므로, 2026년은 1989년에 봉함이 풀린 그 기별이 1996년에 공식화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서, 교정된 한밤중 소리의 기별이 공식화될 해이다.

1776년에 시작되는 '250'년의 연대선은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중간 시점인 2026년, 즉 나귀가 풀려나며 이슬람이 9·11 때와 같이 다시 미국을 공격할 때 시작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직전에 이르게 한다.

네로의 "250"년 연대선은 역사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세 개의 연대선 가운데 중간선이다. 이는 네로의 연대선을 둘째 천사, 곧 셋째 시험에 선행하는 둘째 시험으로 식별한다. 그 둘째 시험은 "짐승의 우상" 시험으로, 313년의 밀라노 칙령으로 전형화된 정교결합의 점진적 수립을 가리키며, 그것은 다시 321년의 최초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330년의 역사로 대표되는, 일요일 법령 뒤에 항상 따르는 국가적 파멸로 귀결되었다.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16절의 일요일 법령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미국에서의 정교 관계 수립의 시작을 지목한다. 그 일은 9·11과 함께 애국법으로 시작되었지만, 인침의 때의 끝에 나타나는 프랙탈에서는 애국법과 밀라노 칙령이 모두, 임박한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타협의 기간을 개시하는 한 조치를 예표한다. 그 조치는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를 직접 결합시키는 일련의 예언적 행위들 가운데 첫 번째이며, 결국 일요일 법령으로 이끈다.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그 역사적 기록 속에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단일한 칙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곧, 동방 로마의 통치자 리키니우스가 보낸 일련의 서한들이었다. 당시 동방 로마는 여전히 강력한 이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의 통치 영역을 그리스도교에 개방하고 있었다. 그 합의 자체는 313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회담에서 리키니우스는 또한 동맹을 굳히기 위하여 콘스탄티누스의 이복누이와 결혼하였다. 제국 동부에 게시된 리키니우스의 서한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되었던 그리스도교 재산의 환원을 명하였다.

밀라노 칙령은 "250"년간의 박해를 종결시켰으며, 세상이 트럼프와 함께 임박한 일요일 법을 향해 나아가감에 따라 그 칙령이 상징하는 모든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점진적으로 박탈될 한 시기를 표상한다.

"독자가 머지않아 닥쳐올 투쟁에서 사용될 세력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과거 시대에 로마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수단들의 기록을 더듬어 보는 것뿐이다. 교황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로마가 안식일과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타낸 정신을 보게 하라.

"왕의 칙령들, 보편 공의회들, 그리고 세속 권력에 의해 뒷받침된 교회 규정들은, 이교 축제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영예의 지위에 오르게 한 단계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최초의 공적인 조치는 콘스탄티누스가 공포한 칙령이었다. (서기 321년) 이 칙령은 '존귀한 태양의 날'에 도시 주민들이 쉬도록 요구하였으나, 농촌 주민들에게는 농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이교적 법령이었으나, 황제는 그가 명목상 그리스도교를 수용한 뒤에도 이를 집행하였다." The Great Controversy, 573, 574.

'250'의 십일조인 '25'라는 수는 반역과 분리를 나타낸다. 에스겔 8장에서 해에게 절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25' 지도자들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과 분리되고, 화잇 여사는 에스겔 9장의 인침을 요한계시록의 십사만 사천의 인침으로 분명히 동일시한다. 그 '25'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동참한 명망 높은 '250' 사람들의 십일조에 불과하다.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머물러 미니애폴리스의 반역을 기록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화잇 여사는 1888년 대총회 회의장을 떠나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는데, 이는 그것이 고라의 반역의 반복이었기 때문이다. '250'은 반역과 분리를 상징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악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분리를 가르치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 공화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뿔은 모두 네 세대로 표상된 시험적 유예 기간의 적용을 받으며, 언약 백성과 그 언약 백성이 정착해 있는 나라가 동일한 기간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는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며 미합중국인 땅의 짐승의 "250"년 동안, 네로의 선은 하나의 칙령을 특정하며, 그것은 법률전의 점진적 격화의 시작을 표시하는 밀라노 칙령으로 대표되고, 그 격화는 321년의 일요일법 칙령에서 마무리되며, 그로써 전 세계가 동과 서로 표상되는 두 계급으로 분할되는 330년에 결말을 맺는 한 시기가 개시된다. 321년에서 330년까지의 그 아홉 해의 기간은 또한 장막절의 일곱 날이기도 하여, 321년의 일요일법에서 시작하여 330년에 미가엘이 일어서고 은혜의 시기가 단힐 때 끝난다.

로마가 목시를 성취하는 자라는 밀러주의 운동의 기초적 이해를 거부하는 것은, 2023년 12월 31일에 도래하여 2025년 5월 8일 영화로운 땅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 선출됨으로써 끝난 그 기초적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윌리엄 밀러로 하여금 로마를 목시를 성취하는 상징으로 인식하게 한 그 기초 진리는, 그것을 거부할 경우 강한 미혹을 불러오는 진리이다.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강한 미혹'을 가져오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외적 목시를 성취하는 상징을 거부하는 것은 세 가지 시험 중 첫째인 기초적 시험을 거부하는 것이다. 엘렌 G. 화잇 여사는 그리스도 시대의 첫 번째 시험을 세례 요한의 기별과 상응시킨다. 그녀는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뜰에서 성소로 옮기실 때의 경륜적 변화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그 점진적 시험 과정을 밀러주의자들의 시대와 연관시키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유대인들과 평행을 이룬다고 가르친다. 각 역사적 선상에서, 첫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다음 단계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경륜적 전환에 대하여 눈이 멀었다. 9/11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산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지 못하였다. 2023년의 기초적 시험에 실패하는 자들은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 시험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거절한 자들은 "완전한 흑암"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완전한 흑암에 이르게 되며, 외적 이상의 빛을 확립하는 것은 로마다. 이 진리는 세 교황들과, 다니엘 11장 10절, 11절, 15절의 세 전투에 서 있는 세 대통령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될 수 있다.

라피아 전투에서 파니움 전투에 이르기까지로 특징지어지는 17년 기간의 한복판인 기원전 207년에 끝난 고레스의 외적 "250"년 연대선은, 네로로 시작하여 313년의 밀라노 칙령에서 끝나는 "250"년 연대선과 상응하였고, 이로써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17년 기간을 표지하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원전 207년(이는 2026년에 해당함)에 안티오코스 대왕으로 서 있으며, 또한 313년(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의 시작)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서 있다. 2026년 7월 4일, 안티오코스와 콘스탄티누스로서의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10절, 11절, 15절의 세 전투와 상응하는 세 대통령 가운데 셋째이다. 레이건은 그 셋 중 첫째였고 오바마는 둘째였다. 그 세 대통령은 "진리"의 표징을 지니며, 레이건과 트럼프는 첫째와 셋째일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를 대표한다.

각 대통령의 예언적 특성은, 그들이 집권할 때 그 시대의 교황과 동맹을 맺는다는 점이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다니엘서 11장 10절과 40절의 성취로서 1989년에 소련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연합하였다. 레이건과 트럼프 사이에 있었던 각성주의 성향의 세계화주의 대통령 오바마는 각성주의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철학적으로 궤를 같이하였다. 트럼프의 교황 레오와의 동맹은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공개적이며, 2025년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레오는 적그리스도로 취임하였다. 대통령과 교황의 영적 관계는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로 표상되며, 대통령과 교황의 정치적 관계는 이세벨과 아합으로 표상된다. 어느 표상에서든 이세벨이 머리다.

"우리가 마지막 위기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도구들 가운데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하나의 우두머리, 곧 교황권 아래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의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그 큰 배도자에 의해 굳게 결속된다. 그가 진리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기의 대리자들을 연합시키려 하는 한편, 그는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려고 일할 것이다. 질투와 악한 추측과 비방은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에 의해 선동된다." Testimonies, volume 7, 182.

이처럼 불의가 만연한 때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거절한 개신교 교회들은 기이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속화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그들은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국가의 법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들은 나라의 통치자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드러내 보이는 그 '죄의 사람'의 잃어버린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게 할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원칙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에 놓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지 않은 자들은 더 이상 성경 진리의 향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7년 12월 21일.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이세벨은 왕비였고 그 선지자들은 그녀의 선지자들이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레이건은 군사력의 상징인 "병거"와 "기병"으로, 또한 경제력의 상징인 "배"로 표상되었다. 그럼에도 그 절에서 "북방 왕"은 교황권이다. 예언적으로 레이건은 이세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 시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느 교황보다도 더 많이 세계를 순방함에 따라,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놀랍게 여겨 뒤따랐다. 예수회의 저명한 저술가 말라키 마틴은 Keys of This Blood라는

그의 저서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관해 썼다. 그 책이 명시한 전제는, 요한 바오로 2세와 레이건의 시기에 세계가 교황권, 미국, 소련 사이의 세계 통치권을 둘러싼 삼자 각축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틴은 그 각축에서 교황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레이건과 적그리스도 사이의 비밀 동맹은,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에 묘사된 바와 같이,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마틴의 책은 개신교 미국을 장악하려는 교황권의 오랜 목표를 재천명하였다. 레이건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교황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을 감으려 했던 그의 태도는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를 소련으로 그릇되게 적용한 데 기초하고 있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혼란해지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레이건은 다니엘서 11장 서두의 구절들에서 지목되는 여덟 대통령 가운데 첫째이며, 또한 그 여덟 대통령 중 적그리스도와 예언적 관계를 지닌 셋 가운데 첫째이기도 하다. 레이건, 오바마, 트럼프의 세 동맹이라는 상징 속에서 진리의 표지가 식별될 수 있다. 첫째인 레이건은 마지막을 예표하며, 레이건과 트럼프 사이의 여러 평행성은 놀라울 만큼 풍성하다.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를 형성하는 세 단계의 중간 이정표는 반역이며, 오바마의 대통령직은 그 전형적 사례이다. 2025년 5월 8일, 미합중국 출신의 교황이 사상 최초로 즉위하였고, 레이건의 비밀 동맹은 트럼프의 공개 동맹에 이르렀다. 2025년에 교황권은 1798년 이래 그 투쟁의 바로 표적이 되어 온 영화로운 땅인 미합중국 출신의 교황을 공개적으로 즉위시켰다. 말라키 마틴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남아 있던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 시행되는 일요일법뿐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강행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와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 권세의 손을 잡게 될 때, 또 그가 그 깊은 구렁을 넘어가 영매주의와 손을 맞잡게 될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 『교회증언』 5권, 451.

2026년 7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의 중간 지점에 서서 그 "250"년을 기념하려 한다. 그 중간점은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인 기원전 207년이다. 그 열일곱 해의 중간점은 또한 313년을 대표하는 네로의 열일곱 해의 시작과, 321년의 일요일 법령과 16절로 이어지는, 교회와 국가로 이루어진 짐승의 형상의 점진적 수립을 표시한다. 그 기간은 313년에 동서의 혼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서방을 대표하는 콘스탄틴의 의붓딸과 동방을 대표하는 리키니우스로 상징된다. 동서 간 혼인 동맹으로 시작한 그 기간은 동서의 분리, 곧 이혼으로 끝난다. 그 중간의 이정표는 최초의 일요일 법령이다.

레이건, 오바마, 트럼프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로 표상되는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에 의해 예언적으로 규정된다. 둘째 단계에 해당하는 오바마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두 명의 교황이 있었다. '워크(woke)'한 교황 프란치스코는, 1981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4월 19일 교황으로 선출될 때까지 신앙교리성(CDF)의 장관으로 재직했던 요제프 라칭거(훗날 베네딕토 16세)를 뒤이어 즉위하였다. 라칭거가 퇴위하고 프란치스코가

재위를 시작함으로써, 오바마의 재임 기간에 두 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오바마는 이성애자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이기도 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배도한 미국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한 무슬림이며 그 종교는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의 종교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영화로운 땅의 정치 체제, 곧 요한계시록 16장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으나, 그의 실제 정치적 성향은 글로벌리스트들, 곧 용과 궤를 같이하였다. 오바마는 두 가지 거짓 종교, 두 가지 성적 성향, 두 가지 정치 체제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예언적으로 정신분열적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성적 성향이든, 정치적 정렬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오바마는 각 영역에서 자신을 은폐한 상태로 머물고자 했다. 미국 시민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려는 그의 노력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를 '분열자 오바마'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호칭은 그의 은폐된 개인적·정치적·종교적 신념에도 반영되어 있다.

오바마 치세의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되기 전에 24년 동안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이끌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본래 '종교재판소'로 불리던 기구의 현대적 명칭이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 글자(레이건), 열셋째 글자(오바마), 스물두째 글자(트럼프)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에서, 오바마 치세의 반역은 숫자 '13'과 상응한다. 종교재판은 분명 반역의 상징이다. 교황 베네딕토는 2013년, 이슬람의 거짓 예언자들과 배교한 개신교의 상징의 정신분열적 치세 동안에 프란치스코에게 교황좌를 양위하였다.

영원한 복음의 둘째 단계는 가시적 시험이며, 오바마와 두 교황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재판소로 대표되는 박해와 각성한 교황으로 대표되는 어머니 대지 숭배에 대한 글로벌리스트들의 집착 사이의 연계성이다. 오바마의 이슬람 신앙은 이슬람으로 말미암은 열방의 분노와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이 표상하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배도한 개신교의 실패를 대표한다. 프로테스탄트는 로마에 항거하는 자이지, 결코 로마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다.

세 교황 중 첫째는 자신이 가톨릭의 지침이 되는 파티마 예언의 "선한 교황"이라고 믿는다고 전 세계에 공표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을 파티마의 "선한 교황"으로 믿었으며, 교황권, 미합중국, 그리고 세계화 세력 간의 삼자 투쟁이 종결될 때 그 "선한 교황"이 철장으로 온 세계를 궁극적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믿었다.

차기 행정부는 용의 세계주의자들의 역할, 이슬람이 열방을 격노하게 함, 배도한 개신교의 개신교로서의 실패를 천명한다. 2025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의 적그리스도와 공개적으로 연합한다. 로마와 미국의 이 세 동맹의 빛은 라피아 전투의 종결과 파니움 전투의 개시의 역사 속에서 인봉이 풀린다. 십칠 년의 시초에 있었던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의 왕국들의 혼인은 2025년의 동맹을 표상한다.

2025년의 연합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모조이다. 먼저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 후 조사의 기간이 있으며, 결국 혼인의 두 번째 단계로 이어져 그곳에서 결합이 완결되고 문이 닫힌다. 모조된 열 처녀의 비유는 2025년에 시작되었고, 다니엘 11장 16절과 41절에 언급된 임박한 일요일법에서 완결된다. 그 거짓 혼인에서 아버지는 사탄이며, 신랑은 교황권이고, 신부는 배도한 개신교 미국이다. 다니엘 11장 14절에서는 '다니엘의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이 곧 로마로서, 그 로마가 그 이상을 확립한다. 윌리엄 밀러가 로마를 그 이상을 확립하는 상징으로 식별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부하는 것과 병행된다. 현재의 적그리스도가 2025년에 집권했을 때, 그는 여덟 명의 대통령에 관한 이상을 확립하였고, 14절을 성취하였다.

우리는 지금 성전의 시험 가운데 있다. 이는 리트머스와 세 번째 시험에 선행하는 두 번째 시험이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